

제 66 회 SGRA-V 포럼

제 6 회 일본·중국·한국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

일 시 : 2021 년 9 월 11 일(토) 오전 10 시~오후 4 시 20 분(일본시간)

방 법 : 온라인 (Zoom Webinar 방식)

주 최 : 아쓰미 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SGRA)

■개최 취지

금번 ‘국사들의 대화’ 기획은, 자국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각국 연구자들의 대화·교류를 목적으로 2016 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5 회 개최됐다. 국경을 넘어 수많은 참가자가 모여, 각국 국사(國史)의 현상학과 과제, 개별적인 실증연구를 둘러싼 논의와 교류를 이어왔다. 제 5 회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첫 온라인 개최를 시도함으로써 많은 참가자들의 흥미로운 발언이 있었으나, 토론 시간이 짧아 모든 쟁점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이번에는 다소 실험적으로, 자유로운 토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과감하게 커다란 주제를 제시했다. 문제제기와 약간의 코멘트를 시작으로 나라, 지역, 시대를 넘어 논의를 풍부하게 전개해 지금까지 확대되어온 참가자의 연대를 한층 깊게 하고자 한다.

또한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본어⇔중국어, 일본어⇔한국어, 중국어⇔한국어 동시통역을 마련한다. 포럼 종료 뒤에는 강연록(SGRA 레포트)을 작성해 참가자 에세이 등을 메일 매거진 등으로 사회에 널리 발신할 예정이다.

■문제제기

시오데 히로유키(塩出浩之, 교토대)

「사람의 이동으로부터 본 근대 일본: 국경·국적·민족」

나라와 지역 사이를 이동하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역사가 국가를 단위로 함과 동시에 국민의 역사로서 서술될 때, 그들의 경험은 역사로부터 누락된다. 반대로 역사를 둘러싼 대화에서, 사람의 이동은 가장 적합한 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 문제제기에서는 근대 일본의 경험을 소재로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도입으로서 미합중국의 오키나와계 커뮤니티에 관한 보고자의 필드워크를 기초로 현대세계의 민족집단(ethnic group)에 대해 개관한다.

첫번째 문제제기로서 근현대의 사람의 이동을 좌우해온 국경과 국적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 사례로서 20 세기 전반 일본통치 하의 오키나와와 조선, 그리고 전후 미국 통치하 오키나와의 이민에 대해 소개한다. 국경과 국적이 근현대 주권국가체제나 국제정치구조(제국주의와 냉전)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두번째 문제제기는, 사람의 이동이 정치·사회 질서에 끼친 임팩트로서 국가와 지역을 오가는 민족집단의 형성, 그리고 국가간 관계와 다른 민족간 관계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20 세기 전반 하와이의 일본계 주민과 중국계 주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다룬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현대 사람의 이동은 전근대와 어떻게 같고 다르며, 또한 국가를 단위로 비교하는 경우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

제 1 세션(10:00-11:25) 종합사회 : 리 언민 (李 恩民, 오비린대)				
	개회취지	10 분	무라 가즈아키 (村 和明)	도쿄대학
	문제제기	30 분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浩之)	교토대학
한국	지정토론	10 분	조 원 (趙 阮)	부산대학
중국	지정토론	10 분	장 자 (張 佳)	푸단대학
일본	지정토론	10 분	에노모토 와타루 (榎本 渉)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휴식 5 분-				
제 2 세션(11:30-12:45) 사회 : 남 기정(南 基正, 서울대)				
한국	지정토론	10 분	한 성민 (韓 成敏)	세종대
중국	지정토론	10 분	친 광 (秦 方)	서우두사범대학
일본	지정토론	10 분	오쿠보 다케하루 (大久保健晴)	게이오기주쿠대학
	코멘트	10 분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浩之)	
	자유토론	약 30 분	지정토론자	
-휴식 45 분-				
제 3 세션(13:30-14:45) 사회 : 펑 하오(彭 浩, 오사카시립대), 정 순일(鄭 淳一, 고려대)				
	논점정리	10 분	류 지에 (劉 傑)	와세다대학
	자유토론	약 60 분	패널리스트 (국사대화프로젝트 참가자) 이치카와 토모오(市川 智生, 오키나와국제대), 오카와 마코토(大川 真, 주오대), 사토 유키 (佐藤雄基, 릿쿄대) , 히라야마 노보루(平山 昇, 가나가와대), 아사노 도요미 (浅野豊美, 와세다대)) ,	

			심철기(沈 哲基, 연세대학), 남 기현(南 基玄, 성균관대학교), 김 경태(金 Kyong tae, 전남대), 왕야오쩐 (王 耀振, 톈진외국어대학), 순찌치양(孫 繼強, 쑤저우대학)	
—휴식 5 분—				
제 4 세션(14:50-16:20) 사회 : 펑 하오(彭 浩, 오사카시립대), 정 순일(鄭 淳一, 고려대)				
	자유토론	약 60 분	패널리스트 (국사대화프로젝트 참가자) 이치카와 토모오(市川 智生, 오키나와국제대), 오카와 마코토(大川 真, 주오대), 사토 유키 (佐藤雄基, 릿쿄대) , 히라야마 노보루(平山 昇, 가나가와대), 아사노 도요미 (浅野豊美, 와세다대)) , 심철기(沈 哲基, 연세대학), 남 기현(南 基玄, 성균관대학교), 김 경태(金 Kyong tae, 전남대), 왕야오쩐 (王 耀振, 톈진외국어대학), 순찌치양(孫 繼強, 쑤저우대학)	
	총괄	10 분	송 쓰용 (宋 志勇)	난카이대학
		10 분	미타니 히로시 (三谷 博)	도쿄대학 명예교수
	폐회인사	5 분	조 광 (趙 珩)	고려대학 명예교수
	동시통역	한국어⇔일본어 : 이 혜리(李惠利, 한국외대), 안 영희(安暎姬, 한국외대) 일본어⇔중국어 : 정 리(丁 莉, 베이징대), 송 강(宋 剛, 베이징외대) 중국어⇔한국어 : 김 단실(金 丹実, 프리랜스), 박 현(朴 賢, 교토대)		

■ 「국사들의 대화」 프로젝트의 경위 :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은 2015 년 7 월, 제 49 회 SGRA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포럼을 개최하면서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知的 공유공간’ 혹은 ‘知的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만들어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것의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 년 9 월의 아시아 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 제 1 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 개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화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찾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타니 히로시 교수 (도쿄대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 (푸단대 교수), 조광 교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 세 나라의 여러 ‘국사’ 연구에서 동아시아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 2 회 대화에서는 자국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골침략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 년 8 월,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에서 11 명의 국사 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 시점에서 연구발표를 행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 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는,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개개의 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었다.

제 3 회 대화에서는 “17 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주제로 설정했다. 2018 년 8 월, 한국·일본·중국에서 9 명의 국사 연구자가 서울에서 모여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홍타이지에 의한 조선침공 및 그 배경에 있는 은 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긴밀한 경제관계, 전란 후의 안정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세 차례의 국사 대화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기 위해, 와세다대학이 주관하는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검증”이라는 패널 토론이 개최되었다.

제 4 회 대화에서는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이라는 테마로 2020 년 1 월에 필리핀 마닐라시 근교에서 한국·일본·중국의 국사 연구자들이 모여 각국의 ‘서양에 대한 인식’,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서 발표하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 5 회 대화는 「19 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을 테마로 하여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인 2021 년 1 월에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19 세기에 감염병 문제를 각국이 어떻게 인식했고, 또 어떻게 대응책을 준비했는지를 검토하고 각국의 상호협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각국 발표자의 논문 발표와 함께 지난 4 회에 걸친 회의 참여자가 패널리스트로 다수 참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Zoom 웨비나라는 플랫폼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전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었다.

3 개 국어에 대응한 레포트의 배포와 메일매거진의 릴레이 에세이 등을 통해 원탁회의 참가자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한다.

■국사들의 대화 레포트 백넘버

제 1 회 국사대화 레포트 「한국·일본·중국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http://www.aisf.or.jp/sgra/korean/2017/08/07/sgra-report-no-79/>

제 2 회 국사대화 레포트 「몽골침략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

<http://www.aisf.or.jp/sgra/korean/2018/05/10/sgra-report-no-82/>

제 3 회 국사대화 레포트 「17 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전란에서 안정으로」

<http://www.aisf.or.jp/sgra/korean/2019/12/19/sgra-report-no-86/>

제 4 회 국사대화 레포트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http://www.aisf.or.jp/sgra/korean/2021/01/29/sgra_report_no_90/

■ 메일매거진 백넘버

<https://kokushinewsletter.tumblr.com/>